

공동체 소식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박재천(알베르토), 박계숙(헬레나) 가정
- Michael Gorman, 한교숙(헬레나)가정

주간 전례

- 7/11(목) :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썰 기도 모임

- 일시 : 화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회관
 '묵주기도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치하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언제든 지 환영합니다.

평협 월례회의

- 일시 : 7/14(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박재식 토마스 신부님 방문

페루에서 6년 동안 선교활동을 하시던 박재식 토마스 신부님(안동교구)께서 저희 캔사스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먼 길 오시는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14(일) 중심미사 때, 저희 공동체와 함께 미사 봉헌하시며 특별 강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기타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 정성된 마음으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합니다.
 - 7, 8월 향복사는 없고, 시종복사만 있습니다.
 - 영명축일 잔치에 애써 주신 평협(전례분과, 구역분과)에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286	210	197/166	283

주일미사 복사

금주	정예찬(미카엘),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안광희(크리스토퍼), 김준영(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네스)	류기범(요 세프) 신혜경(마 리 아)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애찬 봉사자

금주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차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희영(가타리나)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6/23	73명	306불	1,000불
06/30	91명	389불	1,490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3년 7월 7일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한국인 첫 사제로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김 신부님의 순교 정신, 곧 하느님을 위하여 젊음도, 지식도, 가족도, 부귀영화도 포기하신 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용기와 열정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직자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모범을 충실히 따르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성화해설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 (카라바조, 1600~01, oil on canvas, Cerasi Chapel, Santa Maria del Popolo, 로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나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땅으로 오도록 매달아주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형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 때 형리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순교하신 한국의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자의 삶을 되새겨 봅시다.

지영현 시문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2역대 24,18-22 <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마태 23,35 참조) >

화 답 송 :



제 영 혼 을 당 신 의 손 에 맡 기 나 이 다.
 제 영 혼 을 당 신 의 손 에 맡 기 나 이 다.

- 제 몸을 막아 주는 큰 바위 저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저의 바위 저의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구해 주시리이다. 저는 주님만 믿삽나이다. 자비하심에 기뻐 즐거워 하나이다. ◎
-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얼굴 그느르심으로 사람들 음모에서 그들을 구해 주소서. ◎

제 2 독서 : 로마 5,1-5 <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 마태 10,17-22

<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

세 마 “신부님! 신부님!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지난 5월 제주교구로 성지순례 갔다가 용수성지에 들렀습니다. 성지 마당에는 작은 목선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는 길이 13.5미터, 너비 4.8미터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입국하신 라파엘호를 복원한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에 중국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조선교구 3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에게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주교님을 비롯한 13명의 일행과 함께 라파엘 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작은 배로 망망대해를 건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험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신부님 일행은 40여 일의 항해 도중, 여러 번 폭풍우를 만나 침몰의 위기를 넘기면서 9월 28일에 제주도 용수리 해안에 표착하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불과 몇 달 전에도 조선에서 구입한 라파엘 호를 타고 상해로 가는 길에서 그런 고생을 하였습니다. 라파엘 호는 1845년 4월 30일에 제물포를 출발하여 6월 4일,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큰 폭풍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과 동행한 신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신자들에게 성모님 상본을 보이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계속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36년 4월, 15세의 나이로 모방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되어 그해 12월 고국을 떠나 다음해 6월, 마카오에 도착하여 사제수업을 시작한 이래로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수고와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형 직전에도 군중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고난으로 점철된 삶에서도 김 신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조선교회에 대한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환난 중에도 인내와 끈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제2독서) 또한 예수님께 대한 충실 때문에 박해 받는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복음)

지금 우리는 과거처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도전은 황해의 노도처럼 거세고, 온갖 유혹은 보이지 않는 오랏줄처럼 우리를 움아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제들이 더욱더 성령께 의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여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협하는 거센 파도와 힘차게 싸우고 교묘한 유혹의 올가미를 결연하게 벗어던지며 주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형에 처해진 성 안드레아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을 희망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성안드레아를 비춥니다. 이 빛은 하느님의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루카 9,23-24 참조)

- 서울대교구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마중물

“십자가를 던져보게!”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길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치스코는 하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나무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출렁거리서 나중에 반 통 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맛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43.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신 초기부터, 일부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마귀를 쫓아내심, 죄를 용서하심,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심, 율법상의 정결에 대한 독창적 해석, 세리와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심)을 보고 악의를 가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마귀에 들렸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모독하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받는 종교적 죄였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74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

